

임태희·안민석, TV토론서 맞대결…'공약·자질' 검증 공방

등록 2026.05.26 19:02:18



[서울=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안민석(왼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6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SBS프림스타 위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5.2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6일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부터 후보 자질 검증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생방송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6·3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공개 토론회로 두 후보 모두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 후보가 임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고3 사회진출 역량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들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평가는 최악"이라며 성과를 따졌다. 임 후보는 "수능 이후 교육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반응은 아주 좋다"고 맞섰다.

민주시민교육과 부서 폐지 문제에서도 안 후보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거론하며 "10대 극우화가 심각한 시기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앤 경기교육이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을 제대로 지켜왔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자 임 후보는 "민주시민이기에 앞서서 기본과 기초가 더 중요하다"며 "나의 소중함과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인정하는 기본인성 교육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어 "뒹뒹이가 된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은 갖춰지기 시작한다고 본다"며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보다는 생활인성교

육과로 개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안 후보의 LAS(Literacy-Arte-Sports) 공약을 도마에 올렸다. 안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LAS 활동을 일부 학생과 교사만을 전세기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박람회(CES)에 보내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



[서울=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안민석(왼쪽)·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6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SBS프림스타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5.26. photo@news1.com

임 후보는 "160만명의 학생, 13만명의 교사 중 포함되지 않는 분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지 않겠느냐"고 따지자 안 후보는 "LAS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AI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와 지자체의 예산 증액을 비롯해 기업 협찬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교육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안 후보는 임 후보의 대표 정책인 하이러닝을 공략했다. 안 후보가 "하이러닝에 470억원을 사용했는데 교사들 설문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8%였고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76%였다"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임 후보는 "하이러닝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학생들의 모든 학습 및 활동 데이터를 추적해 진로·진학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바뀔 대학 입시제도에서 필요한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도 탑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나서는 사용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안 후보의 공군사관학교 재직 당시 경력을 '조교수'로 표기한 것이 적절한지도 거론했다. 안 후보가 "공군사관학교 교수 임명장은 교육부 장관께서 내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관위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해명하자 임 후보는 "교수 요원하고 교수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임 후보는 안 후보의 개성·파주 학생 교류 공약에 대해서도 "국정원 승인, 북한 호응, 통일부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며 실현 가

능성을 물었다. 안 후보는 "조선 시절 북한을 수십 차례 왕래했다"며 "곧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대가 오면 가장 먼저 파주와 개성 학생들의 달리기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임태희·안민석 두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13년 만에 보수 교육감 체제로 전환된 경기도육을 이어갈지, 진보 진영이 탈환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사전투표는 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